

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- 배인호 초격차(超格差) 국어 제공

199/200

#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

2018학년도 수능

[4~7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무등산(無等山) 흐 활기 뫼히 동(東)다히로 버더 이셔  
 멀리 췌쳐 와 제월봉(霽月峰)이 되어거늘  
 무변대야(無邊大野)\*의 모습 짐작 호노라  
 일곱 구비 호디 움쳐 뜨득뜨득 버러는 듯  
 가운데 구비는 굽과 든 늘근 놓이  
 선증을 궂 췌야 머리를 언쳐시니  
 ㉠ 너르바회\* 우희 송죽(松竹)을 헤혀고  
정자(亭子)를 안쳐시니 구름 탄 청학이  
천 리(千里)를 가리라 두 나리 버러는 듯  
 옥천산(玉泉山) 용천산(龍泉山) 느린 물히  
 정자(亭子) 압 너븐 들히 울울(兀兀)히 퍼진 드시  
 ㉡ 넙거든 기노라 프르거든 회지 마나  
쌍룡(雙龍)이 뒤트는 듯 긴 길을 치뻬는 듯  
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비얏바  
 닳는 듯 췌로는 듯 밤늦으로 혼르듯 듯  
 므조친 사정(沙汀)\*은 눈궂치 퍼젓거든  
 어즈러운 괴력기는 므스거늘 어르노라  
 안즈락 느리락 모드락 훗트락  
 노화(蘆花)을 사이 두고 우러곰 좃니는노  
 너븐 길 밧기요 긴 하늘 아리  
 ㉢ 두르고 췌즌 거슨 뫼힌가 병풍(屏風)인가  
그림가 아인가 노픈 듯 느즌 듯  
궂는 듯 넛는 듯 숨거니 뫼거니  
가거니 머믈거니 어즈러운\* 가운데  
 일흠는 양호야 하늘도 궂치 아녀\*  
 웃독이 췌는 거시 추월산(秋月山) 머리 짓고  
 용구산(龍龜山) 몽선산(夢仙山) 불대산(佛臺山) 어등산(魚登山)  
 용진산(湧珍山) 금성산(金城山)이 허공(虛空)의 버러거든  
 원근(遠近) 창애(蒼崖)의 머븐 짓도 하도 할샤  
 흰 구름 브힌 연하(煙霞) 프로니는 산람(山嵐)\*이라  
 천암만학(千巖萬壑)을 제 집을 삼아 두고  
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 
 오르거니 느리거니 장공(長空)의 췌나거니  
 광야(廣野)로 건너가니 프르락 불그락  
 여트락 지트락 사양(斜陽)과 서거지어 세우(細雨)조츠 뿌리는다  
 남여(籃輿)를 비야타고 술 아리 구븐 길노  
 오며 가며 하는 적의 녹양(綠楊)의 우는 황앵(黃鶯) 교태  
 (嬌態) 겨워 호논괴야  
 나모 새 즈즈지여 수음(樹陰)이 열린 적의  
 백 척(百尺) 난간(欄干)의 긴 조으름 내여 퍼니  
 수면(水面) 양풍(涼風)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 
 즈서리 빠진 후의 산 빗치 금슈로다  
 황운(黃雲)은 췌 엇지 만경(萬頃)의 편거지요  
 어적(漁笛)도 흥을 계워 들틀 췌라 브니는다  
 초목(草木) 다 진 후의 강산(江山)이 미몰커늘

[A]

조물(造物)리 현스호야 빙설(氷雪)노 꾸며 내니  
 경궁요대(瓊宮瑤臺)\*와 옥해은산(玉海銀山)\*이 안저(眼底)의 버러세라  
 건곤(乾坤)도 가음열샤\* 간 디마다 경이로다  
 인간(人間)을 췌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 
 니것도 보려 호고 췌것도 드르려코  
 브람도 혀려 호고 들도 마즈려코  
 붉으란 언제 줍고 고기랑 언제 낙고  
 시비(柴扉)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노  
 ㉡ 아춤이 낫브거니 나조희라 슬홀소나  
오늘리 부족(不足)거니 내일(來日)리라 유여(有餘)호라  
이 뫼히 안자 보고 췌 뫼히 거러 보니  
번로(煩勞)호 모습의 브릴 일리 아조 업다  
 췌 슌이 업거든 길히나 전호리아  
 다만 호 청려장(靑藜杖)\* 다 뫼뫼여 가노미라  
 술리 닉어거니 뫼지라 업슬소나  
 [B] 불느며 트이며 혀이며 이아며  
 온가짓 소리로 취흥(醉興)을 비야거니  
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 
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췌츠락  
 을프락 프롬호락 노혜로 노거니  
 천지(天地)도 넙고 넙고 일월(日月)도 호가호다  
 희황(羲皇)\*을 모을너니 니적이야\* 괴로괴야  
 신선(神仙)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 
 ㉢ 강산풍월(江山風月) 거늘리고 내 백 년(百年)을 다 누리면  
악양루(岳陽樓) 상(上)의 이태백(李太白)이 사라오다  
호탕 정회(浩蕩情懷)야 이에서 더홀소나  
 이 몸이 이렇굼도 역군은(亦君恩)이샤다

- \*무변대야: 끝없이 넓은 들판.
- \*너르바회: 넓고 평평한 바위.
- \*사정: 시냇가의 모래톱.
- \*어즈러운: 어지러운.
- \*궂치 아녀: 두려워하지 아니하여.
- \*산람: 산속에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.
- \*경궁요대: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(樓臺)라는 뜻으로, 호화로운 궁전을 이르는 말. 곧 눈에 덮인 아름다운 자연.
- \*옥해은산: 눈 덮인 들판과 산.
- \*가음열샤: 풍성하구나.
- \*청려장: 명아줏대로 만든 지팡이.
- \*희황: 고대 중국의 전설적 제왕인 '복희씨'의 다른 이름. 여기서는 복희씨의 시대와 같은 '태평성대'를 가리킴.
- \*니적이야: 이적이야. 이때야말로.

- 송순, 「면양정가」

21.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벗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풍류를 즐기고 있다.
- ②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며 잘못된 점을 깨닫고 있다.
- ③ 옛사람들이 자연을 즐겼던 방법을 배우려 하고 있다.
- ④ 빈궁한 생활 속에서도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.
- 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.

22. <보기>를 바탕으로 ㉠~㉣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 기>

면양정의 현판에는 송순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.

굽어보면 땅이요 우러르면 하늘이라.  
이 사이에 정자가 있으니 호연한 흥취 일어나네.  
풍월을 부르고 산천에 읊하여  
명아주 지팡이로 평생을 보내노라.

'면양'이라는 명칭은 글귀의 첫 행에서 나온 것으로, 땅을 굽어보고 하늘을 우러른다는 의미이다. 현판의 글귀를 통해 송순이 면양정 주변의 자연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 수 있다. 그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유롭게 완상할 수 있고, 자연물에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이 면양정 주변의 자연이라고 생각했다. 그래서 송순은 자신이 이런 공간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.

- ① ㉠: 면양정의 입지와 외양을 묘사하며 비상의 이미지를 통해 그곳이 작가의 이상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간임을 밝히고 있군.
- ② ㉡: 작가가 완상하고 있는 면양정 앞 시냇물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고 있군.
- ③ ㉢: 작가는 면양정 주변의 산봉우리들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그들이 세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군.
- ④ ㉣: 작가는 세속을 떠나 유유자적하는 생활 속에서 즐길 것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군.
- ⑤ ㉤: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자신의 삶을 타인과 견주며 작가가 느끼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군.

23. [A]를 원작의 계절적 배경에 충실한 영상으로 제작할 때, 적절하지 않은 장면은?

- ① 여름에 화자가 가마를 타고 피꼬리 소리가 들리는 산길을 이동하는 장면
- ② 여름에 화자가 정자의 난간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조는 장면
- ③ 가을에 화자가 곡식이 누렇게 익은 넓은 들판을 바라보는 장면
- ④ 겨울에 어부가 달빛이 비치는 강가를 거닐며 피리를 부는 장면
- ⑤ 겨울에 화자가 눈으로 덮인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는 장면

24. [B]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의문의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.
- ② 화자의 행동을 나열하여 생동감을 조성하고 있다.
- ③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.
- ④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.
-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.